



KIA의 김선빈이 2일 대전구장에서 열린 한화와의 경기에서 1회 박찬호를 상대로 선제 결승홈런을 터트리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가을 호랑이 홈런 3방 '펑펑펑'

한국, 7-1 호주 대파 3연승



김선빈·나지완·김상훈... 박찬호 한화 마운드 맹폭
KIA 17안타 13-2 대승... 김진우 6이닝 1실점 7승

'작은 거인' 김선빈이 '빅 리거'를 잡았다. KIA 타이거즈가 2일 대전구장에서 열린 한화 이글스와의 경기에서 선발전원안타로 13-2 승리를 거두며 3연패에서 벗어났다. 1회 김선빈의 홈런이 공격의 신호탄이 됐다. 1사에서 타석에 선 김선빈이 박찬호의 6구째 140km 투심 패스트볼을 잡아당겨 좌측담장을 넘기며 선취점을 만들었다. 김원섭의 3루타에 이어 나지완·안치홍의 안타가 이어졌고, 박기남의 희생플라이를 더해 KIA가 1회에만 3점을 뽑아냈다.

타선의 출발이 좋았지만 김진우의 초반 움직임은 좋지 못했다. 1회 1사에서 볼넷으로 장성호를 내보낸 김진우가 최진행의 안타와 김태균의 희생플라이로 1점을 내줬다. 2회에는 고동진과 이대수를 연속해서 몸에 맞는 볼로 내보내면서 흔들렸다. 하지만 폭포수 커브를 앞세운 김진우가 무사 1·2루에서 아웃카운트 3개를 잡아내며 실점없이 이닝을 마무리 했다. 기선싸움에서 앞선 KIA가 연달아 홈런포를 터트리며 한화와의 앞선 두 경기 패배를 설욕했다.

3회초 선두타자 나지완의 중월 솔로포가 나오면서 4-1. 4회에도 KIA의 공세는 계속됐다. 이준호의 중견안타와 이용규의 내야안타로 무사 1·2루, 김선빈이 1타점 적시타를 때리며 박찬호에게 두 번째 판치를 날렸다. 김원섭의 좌전안타까지 이어지면서 박찬호는 4회도 버티지 못하고 마운드를 내려왔다. 3이닝 9피안타 2사사구 1탈삼진 그리고 7실점. 박찬호는 KIA전 4번째 등판에서도 승리를 신고하지 못했다. 앞선 세 번의 등판에서 2패만 기록했던 박찬호의 KIA전 방어율은 9.42까지 뛰어올랐다. '작은 거인' 김선빈은 올 시즌 박찬호와의 4차례 승부에서 11타수 6안타(1홈런) 0.545의 타율과 함께 3타점을 기록하면서 '빅 리거'의 천적으로 자리했다. 만행이 일찍 물러난 한화 마운드는 무기력했다. KIA는 6회 타자 일순하며 한화 마운드를 공략했다. 김상훈의 만루포까지 터지면서 점수는 13-1까지 벌어졌다. 앞선 세 타석에서 안타를 기록하지 못했던 김상훈의 만루포와 함께 KIA의 선발 전원 안타도 완성됐다. 장단 17안타를 몰아친 타선의 든든한 지원을 받은 김진우는 6회까지 3개의 사사구를 기록했지만 단 2개의 안타로 1점만 내주며 시즌 7승째를 거뒀다. 탈삼진도 7개를 더 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세계청소년야구선수권

한국이 세계청소년야구선수권대회에서 3연승을 달렸다. 이정훈(천안북일고)감독이 이끄는 한국 대표팀이 2일 목동구장에서 열린 A조 조별리그 호주와의 경기에서 7-1 승리를 거뒀다. 베네수엘라(2-1)와 미국(8-2)을 연달아 격파했던 한국은 호주전 승리까지 더해 3연승에 성공했다. 0-1로 뒤진 3회 2사2루에서 4번 타자 윤대영(진흥고)이 호주 좌완 루이스 소프를 상대로 적시타를 때려내며 동점을 만들었다. 윤대영이 승부를 원점으로 돌린 뒤 호주의 연속 실책과 함께 4회 한국이 역전에 성공했다. 선두타자로 나온 송준석(장충고)의 3루타에 이어 유영준(덕수고)의 안타로 2-1. 도루로 2루를 밟은 유영준이 패스트

볼과 폭투로 홈에 들어오면서 3-1이 됐다. 역전에 성공한 뒤 한국 선발 장현식(서울고)이 호주 타선을 봉쇄하며 승리를 지켰다. 7이닝을 5피안타 1실점으로 막은 장현식은 탈삼진도 7개를 뽑아내며 승리투수가 됐다. 동점타를 때린 윤대영이 연승의 주역이 됐다. 윤대영은 베네수엘라와의 대회 첫 경기에서는 2안타, 2볼넷으로 100% 출루에 성공하며 타점과 득점을 하나씩 기록했다. 3회말 2사2루에서 좌전 안타로 선취점을 만든 윤대영은 이어진 2사 만루 상황에서 상대 투수가 2루에 견제구를 던지는 사이 홈을 파고들며 첫 승리의 주인공이 됐다. 미국전에서는 3-2로 쫓기던 6회말 2사 만루에서 좌측펜스를 강타한 타구로 싸늘이 3타점에 성공하며 승부에 쐬기를 박았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한국프로골프 선수권

이상희 시즌 첫 우승

이상희(20·호반건설)가 SBS투어 해피니스 광주은행 제55회 한국프로골프(KPGA) 선수권대회에서 시즌 첫 승이자 메이저대회 첫 우승을 차지했다. 이상희는 2일 나주 해피니스 골프장 휴먼·해피코스(파72·7125야드)에서 열린 대회 3라운드에서 버디만 6개를 쓸어담는 맹타를 휘둘러 6언더파 66타를 쏘냈다. 강경남(29·우리투자증권)에 3타 뒤진 공동 8위로 마지막 날 경기를 시작한 이상희는 최종합계 13언더파 203타를 적어내 공동 2위 그룹을 2타 차로 제치고 시즌 첫 우승이자 통산 2승째를 올렸다. 한편 KPGA 선수회는 이번 대회 총상금(5억원)의 4%인 2000만원을 태풍 피해 복구 기금으로 기부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김지현 LIG 클래식 우승



김지현(21·웅진코웨이·사진)이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LIG손해보험 클래식에서 정규투어 첫 우승을 차지했다. 김지현은 2일 경기도 포천의 일동레이크 골프장(파72·6509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3라운드에서 버디 5개에 보기 1개를 묶어 4언더파 68타를 쳤다. 함께 13언더파 203타를 적어낸 김지현은 5타를 줄이며 추격해온 2위 이정민(20·KT)을 2타차로 따돌렸다. 2부 투어를 거쳐 2011년 정규투어에 데뷔한 김지현은 첫 우승컵과 함께 상금 1억원을 받았다. /연합뉴스

"윤석민·류현진 보자" MLB 스카우트 군단 무등야구장에 몰려

텍사스 레인저스 등 8개 구단서 큰 관심

무등경기장에 스카우트 군단이 됐다. KIA와 한화와의 경기가 열린 지난 주말, 무등경기장에는 스피드건으로 무장한 외국인들이 대거 포진했다. 한국을 대표하는 두 투수를 보기 위해 찾은 스카우트들이었다. 31일에는 한화의 좌완 류현진이 출격했고, 1일에는 KIA 우완 윤석민이 마운드에 올랐다. 류현진의 경우 올 시즌이 끝나면 포스팅 시스템을 통해 해외 무대에 진출할 수 있다. 구단 동의가 있다면 당장 내년부터 빅 리그에 오를 수 있다. 류현진에 1년 앞서 해외 진출의 가능성이 열린 윤석민은 일단 팀 잔류를 선택했다. 윤석민은 내년 시즌이 끝난 후 자유계약(FA) 신분으로 해외 진출을 노릴 전망이다. 두 선수의 해외 진출이 임박하면서 스카우트들의 발걸음도 빨라졌다. 특히 올 시즌 빅 리그에 진입한 대한 출신의 좌완 천웨이(볼티모어)의 활약과 맞물려 류현진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류현진이 천웨이보다 한 수 위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다 두드러진 배짱과 마운드에서의 여유에 몸값이 치솟고 있다. 그 인기를 보여주는 류현진이 등판한 지난 31일 일본과 미국 8개팀 스카우트가 경기장을 찾았다. 지독한 불운에 몰렸던 류현진은 보란 듯 공을 던지며 8이닝 3피안타 2사사구 4탈삼진 무실점의 호투와 함께 한 달여 만에 승리투수가 됐다. 류현진이 강렬한 인상을 남긴 반면 윤석민은 '스카우트 징크스'에 아쉬움을 남겼다. 윤석민은 2회 세 타자 연속 삼진을 잡아내는 등 2이닝을 삼자범퇴로 막았지만 하위타선과의 승부가 벌어진 3회 선두타자 고동진의 안타와 함께 흔들렸다. 1사 2·3루에서 오선진에게 2타점 적시타를 허용한 윤석민은 7회에도 고동진에게 적시타를 맞으며 3실점을 했다. 윤석민은 팀 타선이 실점을 만회하지 못하면서 패전투수가 됐다. 7이닝 5피안타 1사사구, 9개의 삼진도 뽑아내는 등 기록상으로는 훌륭했지만 윤석민의 100%를 보여주기에겐 허전함이 남는 피칭이었다. 국제 무대에서도 통하는 강심장이지만 예민하고 꼼꼼한 성격 탓에 스카우트들이 찾은 경기에서 기복을 보이며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메이저리그 스카우트들이 지난 1일 KIA와 한화와의 경기 열린 무등경기장을 찾아 윤석민의 피칭을 지켜보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기술 외적인 부분에서 약점을 보이고 있지만 텍사스, 시카고 컵스, 캔자스시티, 미네소타 등이 윤석민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텍사스 스카우트는 "류현진이 좌완이라 더 가능성이 높지만 두 투수 모두 훌륭한 선

수다. 다른 선수보다 윤석민을 긍정적으로 관심있게 보고 있다. 다음 등판 때도 경기장을 찾을 예정이다. 내년까지 관심 있게 지켜볼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광주일보 창사60주년 기념 임홍길 대장과 함께하는 밀레 '한국명산 16좌 원정대' 모집
참가신청: 광주/전라지역 밀레 매장에서 접수
참가특전: 참여하신 모든분께 밀레 기념품 증정
다섯번째 산행: 9월 28일(금) / 덕유산
문의처: (주)밀레 마케팅본부 (02-3153-3143, 4)